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25년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 추세는 지속되어 2035년에는 그 비율이 29.9%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¹⁾ 동시에 65세의 기대여명은 2010년 19.8년에서 2023년 21.5년으로 증가하여 노후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²⁾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훨씬 이른 시기에 발생한다. 2024년 5월 기준 55~64세 인구 중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경우의 평균 연령은 59.7세이며, 조기 퇴직(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한 경우는 평균 51.2세였다(윤정혜 2025). 2023년 기준 51세의 기대여명은 약 34년임을 고려하면, 조기 퇴직자들은 30년 이상의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명 연장으로 장기 노후에 대비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자의 재무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금융역량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OECD 2020a; OECD 2020b). 그렇다면 왜 중고령층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이 시기는 생애 자산 축적이 정점에 도달하는 동시에(통계청 2024), 은퇴계획 수립, 연금 수령 선택,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배분, 주거 형태의 조정 등 중요한 재무 결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와 재무 결정의 중요성이 모두 높은 만큼, 이 시기 금융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더불어, 이 시기에 금융관리를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Agarwal et al.(2009)은 고령소비자는 젊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 실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인지적, 신체적 역량 저하로 금융 실수로 인한 실패

1)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2025. 11. 14. 검색

2) 국가데이터처, 「생명표(2023)」, 완전생명표(1세별), 2025. 11. 14. 검색

로부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에 비해 은퇴자들에 대한 실질적 규제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 시기의 재무 결정은 노후 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층은 다양한 금융사기 위험에 취약하다.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³⁾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5.4%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었으며, 50대 피해자의 58.3%, 60대 이상 피해자의 75.6%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춘 중고령자는 이러한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후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역량 강화는 중고령층이 직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중고령층의 금융역량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 부양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노인 빈곤은 기초연금 및 의료비 등 공적 부양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고령층이 적절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자립적 노후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의 노후를 넘어 가족과 국가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은 중요한 재무 결정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그 결정의 효과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초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재무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도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매일경제(2025. 7. 17.), “정보 털리는 순간, 피싱도 시작된다”; 매일경제(2025. 7. 14.), “AI에 낚였다, 보이스피싱 악랄한 진화”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3. 2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 원 피해, 전년비 1.5배↑: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

개인의 재무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태도,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금융이해력은 주로 금융지식과 이해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Lusardi and Mitchell(2014)은 금융이해력을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 계획, 자산 축적, 부채 및 연금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은 구체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 재무 결정을 위한 수리적 능력 등을 포괄한다(Hastings et al. 2013).

금융역량은 금융이해력을 포함하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식뿐 아니라 태도와 실제 행동까지 아우른다. World Bank(2013a), World Bank(2013b)는 금융역량을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금융이해력이 주로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금융역량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재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복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이해력의 영역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금융역량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OECD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OECD/INFE)가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금융이해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OECD 2023; 영역별 조사 문항 개요는 <부록 II>를 참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3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⁵⁾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측정도 포함되었다.⁶⁾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식과 실제 금융행동 및 실천 영향을 함께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사용하되, 선행연구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으로 측정된 결과들도 금융역량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금융이해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데, 중년기까지는 경험 축적과 함께 향상되다가 고령기에 접어들며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Lusardi and Mitchell(2011a), Lusardi and Mitchell(2011b)은 이러한 생애주기 패턴을 제시한 바 있으

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7.),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6)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7.),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며, 이후 연구들은 고령기의 금융이해력 감소가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Finke et al. 2017; Boyle et al. 2025).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예컨대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40대가 68.4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하락했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전 연령대 평균(65.7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는 중년을 기점으로 금융이해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이해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학력, 소득 수준, 성별 등이 금융이해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Atkinson and Messy 2012; Hastings et al. 2013; Lusardi and Mitchell 2014; Lusardi and Mitchell 2023). OECD(2023)의 최신 보고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고소득 집단이 저학력·저소득 집단보다, 경제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Boyle et al.(2025)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융이해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만 성별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이해력은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Finke et al.(2017)과 Gamble et al.(2015)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금융이해력 감퇴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더 나아가 Gamble et al.(2015)은 고령층의 능력 대비 자신감 괴리 현상을 발견하였다. 고령자의 실제 금융역량은 하락하지만 본인 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유지되는 경향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금융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금융역량이 실제로 어떤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가이다. 먼저 금융역량은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Lusardi and Mitchell(2011b)과 Alessie et al.(2011)은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체계적인 은퇴계획을 수행하고, Hastings and Mitchell(2020)은 은퇴 자금 축적을 더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et al.(2021) 또한 금융이해력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재무관리 활동에 적극적이며 전문적 금융 조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역시 앞선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금융이해력이 노후 대비 금융행동 및 금융웰빙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정현 외 2012; 양혜경 2018; 양덕순 2022; 최철 2023).

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5. 4. 29.),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역량은 자산 축적, 투자, 부채관리와 같은 구체적 재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Behrman et al.(2012)은 금융역량이 자산 축적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Von Gaudecker(2015)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안정적인 투자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부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Lusardi and Tufano(2015)는 금융역량이 바람직한 부채관리 행태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Engels et al.(2021)은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금융사기를 탐지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금융역량이 자산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나 불리한 금융상품 선택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한다.⁸⁾

이러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요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OECD(2020b)는 각 생애주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금융웰빙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에 적합한 집중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⁹⁾ 국내에서도 법정기구로서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으며, 금융역량지도를 개발하여 각 생애주기 단계에 맞춘 금융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¹⁰⁾ 금융감독원은 아동, 청년, 성인, 교사 등 대상별 온라인 및 방문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각각 제공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의 개념과 효과를 폭넓게 규명해 왔으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이해력, 금융교육, 금융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주로 학교 금융교육, 은퇴저축기 금융역량 강화 등 주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를 이루는 반면, 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디지털 금융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국내 연구들 중에는 은퇴 전후의 가계소득 및 소비의 변화, 자산보유 행태, 은퇴자산의 최적 소비나 투자 전략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¹¹⁾ 그러나 동 연구들은 대부분 은퇴기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특

8)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금융이해력과 은퇴계획, 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 금융 실수 등 금융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이해력 관련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정리한 문헌고찰 논문(Survey paper)인 Lusardi and Mitchell(2014), Stolper and Walter(2017) 등을 참조

9) OECD(2020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OECD/LEGAL/0461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1) 이경희 외(2025); 유경원 외 2인(2020); 유경원 외(2016); 여윤경(2014); 이희숙 외 2인(2013); 윤재호 외(2010); 석상훈 외(2009)

정 시점의 소득, 소비, 자산 구성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각 금융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중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앞서 학력, 소득,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중고령층에서 어떻게 금융역량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특히 고령기로 갈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이 높아진다는 Gamble et al.(2015)의 발견을 고려할 때, 중고령층 내 취약 집단을 식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중고령층이 처한 특수한 재무 상황에서 금융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이다. 금융역량이 실제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은퇴 결정, 연금 수급, 자산 인출과 같이 중고령층이 실제로 직면하는 재무 상황에서 금융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이해력을 분석하여 이들의 금융역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금융역량 격차를 분석하고 취약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설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중고령층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금융후생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을 기준으로 한 3분의 집단들의 비교를 통해 금융지식 개선이 긍정적인 금융행동 실천, 또는 금융후생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진단 설명자료와 비교하여 개선된 정보 제공 방식(카드뉴스)이 금융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토대로 중고령층의 금융역량 현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